

한국 최고의 자동차 명의(名醫) 권옥로 대표

권옥로(權玉老, 추밀공파, 35世) (주)도이치란트 하우스(www.deuts.co.kr) 대표가 2023년 11월 19일 SBS 고수열전에 출연했다. 2018년 12월 31일 방송에 이어 두 번째다. 지난 35년 동안 일본차, 미국차, 독일차 등 수입차 정비로 한 우물만 파며 인생의 길을 걸어왔다. 특히 벤츠, BMW, 아우디 등 독일차 전문이다. 독일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치고 권 대표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이다. 부산과 경남 진주 등에서 찾아오는 손님도 있다 한다. 입소문을 타고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전국에 걸쳐 그 유명세는 대단하다. 마치 아픈 환자가 의술이 뛰어난 명의를 찾듯이, 죽은 사람이 살았다는 중국의 명의 편작처럼 고장난 자동차들이 자동차 명의 권 대표를 날마다 찾는다. 그 비밀은 뭘까. 권옥로 대표를 만나기 위해 '도이치란트 하우스' 카센터를 방문했다.

권옥로 대표는 전북 완주에서 8남매 중 일곱째로 태어났다. 집에서 방앗간을 운영했는데 주변 5개 마을에서 신세 안진 사람이 없을 정도로 잘 살았다 한다. 어릴 적 기계를 보고 자라서일까 어려서부터 만화책도 좋아하지 않았지만 기계 만지는 것은 무척이나 좋아했다. 거기에 어떤 사물을 보면 그 안이 어떻게 생겼는지 몹시 궁금했다. 궁금하면 뜯어봐야만 직성이 풀렸다. 중학교 때는 세탁기가 고장났는데 서비스 센터에서 부품을 사서 혼자 고친 적도 있었다. 이후로도 기계가 고장 나면 고치는 게 그렇게 좋았다. 그냥 좋았다. 그래서 그 당시 공과가 유망할 것 같아 공과 시험을 봐서 합격했다. 그런데 부산대학교 교수였던 고모부가 앞으로는 농고가 더 전망이 좋을 것이라며 전주농림고등학교에 진학하기를 권유했다.

자동차와는 1983년 공공에 입대하고서야 드디어 인연을 맺었다. 정비를 얼마나 잘했는지 휴가를 못갈 정도였다. 제대하자마자 카센터를 차렸다. 고장을 고치지 못하면 몇 날 며칠이고 아무도 없는 야밤에 자동차 기술서적을 보면서 해법을 찾고 뚫으며 익히며 기술을 습득해야만 했다. 다른 사람보다 몇 배는 더 노력했다고 한다. 그렇게 10년 20년 30년 하다 보니 이제는 자동차를 딱 보면 어디가 아픈지 바로 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한국 최고의 자동차 명의 편작으로 우뚝섰다. 인터뷰를 하고 있는 도중에도 '편작'을 찾는 전화가 빗발친다. 오늘은 그래도 적게 오는 편이라고 귀땀한다. 평소에도 기본이 100등 정도란다.

권영완 편집국장(이하 국장): 전기차가 나왔는데 연료를 사용한 자동차와 전기차의 고장률이나 정비하는데 다른 점이 있나.

권옥로 대표(이하 대표):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차가 많이 줄어들고 있다. 이런 환경변화는 고장률이 낮아지고 정비사들의 할 일이 줄어들어 그만큼 먹거리가 많이 줄어든다는 얘기가. 예전에 전파차가 많이 있었는데 세상이 변화하여 어느 날 전파차가 없어지듯이 자동차 트렌드도 변하고 있다. 그래도 내가 일하는 동안은 크게 걱정할 것이 없을 것 같은데, 아들 세대에는 시대 변화에 맞춰 연구를 많이 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 같다. 인간의 이동수단으로 차는 계속 있어야 하니까 살아남으려면 연구 많이 해야 한다. 따라가지 못하면 도태된다.

국장: 그래도 자동차의 기본구조는 그대로 아닌가.

대표: 과학기술이 발달하여 자동차는 시스템이 계속 바뀐다. 자동차 의사라고 하셨는데 의사보다 공부를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하는 대로. 엔진 정비장치와 연료시스템 등이 바뀌는 대로



따라가야 하니까 그렇다. 인체에는 새로운 병이 생겨 치료방법이 발전하기는 하지만, 인체구조는 그대로 있지 않은가. 자동차는 계속 업그레이드된다.

국장: 그런데 왜 수입차 외제차만 고집하나.

대표: 지구상에 자동차 유명브랜드로는 독일이 제일 유명하다. 우리나라 수입차 중 독일차가 80~90%이다. 수입차 중 병차 레벨로는 벤츠, 아우디, BMW, 폭스바겐 등을 들 수 있다. 전부 독일차다. 우리 상호명이 '도이치란트 하우스'인데 독일차를 전문으로 하는 카센터라는 의미이다. 부품도 비싸고 비용도 다소 비싼 편이다. 식당에 라면이나 칼국수만 팔아서는 잘 팔린다 해도 한계가 있다. 한우라도 팔아야 수지가 맞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국장: 자동차 명의로서 자신만의 철학이라면.

대표: 대부분 좋은 손님들이지만, 가끔 진상 손님이 있다. 말투와 실수를 트집 잡고, 상대방 약점을 잡아 갑질하는 고객이다. 저는 이런 손님들한테는 더 잘 해준다. 그러면 단골이 되더라. 사람인지라 아무리 고객이어도 트집 잡고 그러면 불친절하게 마련이고 그게 인지상정 아닌가. 그런데 여기는 그림에도 불구하고 된절하고 잘 해주면 보통 고객보다 더 믿고 단골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 손님과 싸워 보내면 결국 내 손해다. 절대 손님에게 이기지 말고 무조건 쳐준다. 부딪히면 내 손해다. 직원들 큰소리 나지 않게 손님이 잘못된 게 있어도 손님과 싸워서 이기면 무조건 안 된다는 것이 철학이라면 철학이다.

국장: 한국 최고의 자동차 명의라면 독보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기술 전수를 어떻게 하고 있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하고 있다.

대표: 직장생활을 한 경험도 없는 데다 멘토도 없이 카센터를 오픈하고 보니 어려움이 많았다. 카센터에서 낮에 일하고 밤에 교육하며 혼자 발로 뛰고 책을 보고 기술을 습득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2006년부터 2년간 한국자동차디젤학회 초대 회장을 맡아 활동했고, 오산대학교 자동차학과에 출강하여 이론과 실기교육도 한 적이 있다. 그동안 익힌 이론과 기술을 직원들에게 하나하나 전수하고 있다.

국장: 자동차 정비 분야에 한 획을 그은 권 대표.



청진기를 끼고 자동차를 진찰하고 있다.

동권씨로서 느끼는 자부심은 어떤 것인가.

대표: 평소 안동권씨로서 상당한 자부심을 갖고 있다. 어릴 적부터 양반가문이니 등등에 대해 자주 들었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은 내가 지나가다 권씨 얘기만 들어도 일가로서 반갑다. 안동 시조 묘소에는 어릴 적에 문중 어르신들과 함께 버스로 다녀왔던 기억이 난다. 지금보다 옛날에 어르신들이 안동 권씨라는 자부심이 훨씬 강했던 것 같다. 어릴 적 부모 교육이 정말 중요한 것 같다. 그러면 최소한 안동 권씨로서 안동권씨에 누를 끼치는 행동은 안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가치관은 스스로 지켜야지 누가 지켜준다고 해서 지켜지는 것이 아니다.

국장: 마지막으로 자라나는 후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대표: 후손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오늘의 안동권씨가 있게 해 준 선조들은 정말 훌륭하다고 생각한다. 후손들도 그에 못지않게 이 시대에 안동권씨 가문의 역사를 새롭게 세울 수 있는 자기 분야에 일가(一家)를 이룬 후손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권옥로 대표는 '시시타임' 잡지 2019년 10월호 표지모델로 나올 정도로 한국 자동차 정비 분야의 최고 명의로 통한다. 현재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 28-1길6, 양화대교와 성산대교 중간쯤에 위치한 강변도로 바로 밑 노들길에서 도이치란트 하우스(02-2631-6764)를 운영하고 있다. 서울공과 자동차학과를 졸업한 아들과 함께 일하고 있다.

권영완 편집국장

2024 갑진년 태사묘 춘향대제 봉행

안동태사묘관리위원회(위원장 권정창)가 주관하는 '2024 갑진년 태사묘(太師廟) 춘향대제(春享大祭)'가 3월 24일(음력 2월 15일 中丁日) 오전 10시 안동시 태사길(북문동) 태사묘우(太師廟宇)에서 안동권씨, 안동김씨, 안동장씨 등 삼성(三姓)의 참제원(參祭員)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엄숙하게 봉행(奉行)하였다.

안동지방은 오전부터 구름이 낀 흐린 날씨가 계속되고 영상의 기온이 유지되는 바람에 코로나 이후 가장 많은 참여원들이 참석하였다. 권정창 태사묘관리위원장이 3년 임기가 올해 끝이 남고 같은 파의 권오신 좌윤공파 회장, 권오식 부회장 등 임원들이 경주, 포항에서 대거 참석하였으며 권철환 안동종친회장, 권기수 별장공파 회장, 권기갑 성균관 부원장, 권오의 대종회 안동사무국장, 김동량 대한노인회 안동시지회장이 참석, 자리를 빛내주었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분정례(分定禮)를 시작, 초헌관 권경웅(權敬雄), 아헌관 김광동(金廣東), 종헌관 장원균(張元均), 찬자 권태혁(權泰赫), 축관 권오의(權五翼), 김도현(金度顯), 장제덕(張在德) 등으로 권혁근(權赫根, 좌윤공파)씨가 1시간에 걸쳐서 집필하였다.

헌관, 찬자, 축관들은 관복(冠服)으로 같이 입고 참여원들은 도포와 유건을, 일반인들은 평상복을 각각 입고 태사묘우 앞에서 권태혁 집례의 창홀(唱符)에 따라 1시간 30분 걸쳐서 춘향대제를 엄숙하게 봉행하였다. 춘향제 봉행이 끝나자 송보당(崇報堂) 앞 잔디밭에서 단체로 기념촬영을 하고 나서 송보당 마루 위에서 음복례(飲福禮)를 하였다.

음복례가 끝나자 김두선 사무국장의 사회로 송보당에서 '2024년도 태사묘대당회의'를 개최하였다. 회의는 도유사(都有司) 인사, 위원장 인사, 경과보고, 감사보고, 자산보고, 2023년 결산보고, 2024년도 예산안, 기타 토의 등의 순으로



진행하였다.

이 자리에서 초헌관을 맡았던 권경웅(안동원로원 회원) 도유사는 인사말에서 "여러분의 덕분으로 오늘 춘향대제를 대가없이 행사를 잘 치러주어 대단히 고맙다"고 인사했으며 권정창 관리위원장은 "날씨도 청명하지 않은데 여러분이 협조해 주어서 대단히 고맙다"고 말하고 "3년간 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주사(廚舍)와 차전각(車戰閣) 뒤편 담장을 각각 보수하는 등 태사묘의 각종 사업을 마무리했는데 이는 여러분의 덕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국한 감사의 감사보고, 김두선 사무국장의 경과보고, 2023년 결산보고를 유인물로 대신하고 2024년도 예산안은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주최 측은 오늘 참석자 전원에게 태사묘에서 점심을 먹지 않은 대신 1인당 점심 값으로 2만원씩 지급했으며 음복례(飲福禮)를 한 후 해산하였다. 권영건 보도부장

양촌 권근 선생 학덕 시제 전국 한시 백일장 개최

성균관유도회 포항지부에서는 문충공(文忠公) 양촌(陽村) 권근(權近) 선생의 학덕(學德)을 시제(詩題)로 하는 전국 한시(漢詩) 백일장을 아래와 같이 개최한다.

한시에 관심 있는 안동권씨 종친 여러분께서는 많이 참가하여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여 문충공 양촌 권근 선생의 학덕과 안동권씨의 위상을 드높이기를 바랍니다.

권오협 문충중종중 회장



1. 시제(詩題): 친(讖) 양촌 권근 선생 학덕(學德)
2. 압운(押韻): 천천 선先 협賢 선宣 전傳
3. 투고 마감: 2024.7.31.(기일업수)
4. 투고처: 우)37837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306 112동 1102호 정규선
5. 작시문의(作詩問議): 010-3532-4095(이환식)
6. 상금내역(賞金): 장원(壯元) 1인 70만원, 차상(次上) 1인 각 40만원, 차하(次下) 1인 각 30만원, 참방(參榜) 10인 각 10만원, 가작(佳作) 30인 각 5만원
7. 시상 일정: 2024.9월중(추후 통지예정)
8. 후원: 포항시, 포항시의회, 성균관유도회경북본부, 안동권씨양촌중종

제33회 안동권씨청,장년회 전국체육대회 준비사무실 개소식

안동 능곡회(陵谷會 회장 권태형)는 3월 16일 오후 2시 안동시 안기천로18 안동권씨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능곡회원, 능우회원, 각 파종회장, 도의원, 읍면 지회장, 부녀회원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3회 안동권씨청,장년회 전국체육대회 준비사무실 개소식"을 개최하였다.

체육대회 준비사무실에는 안동권씨 분향(本鄕)에서 열리는 체육대회 성공개최를! 안동권문 화합하여 승조사상 이어가자! 능곡회 하나 되어 성공적인 체육대회 개최 하자!는 등 각종 구호가 적힌 대형 현수막이 벽면을 가득 채워 전국체육대회가 곧 다가감을 실감케 했다.

권우경 능곡회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개소식에는 국민연례, 시조 묘소 망배에 이어 권광택 부대회장 겸 도의원이 내빈소개를 하였다. 이날 참석한 내빈은 권철환 안동종친회장을 비롯하여 권중근 전국파총회장협의회 회장, 권정호 동정공파 회장, 권기수 별장공파 회장, 권순복 정조공파 회장, 권오의 대종회 안동사무국장, 권태형 대회장 겸 능곡회장, 권영훈 준비위원장, 권오식 능우회 회장, 김동학 사무국장(김영동 국회의원 사무실) 등이다.

권태형 대회장은 인사말에서 "능곡회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선조님의 얼을 받들어 한마음 한뜻으로 이번 체육대회를 능곡회와 능우회가 준비하고 있으며 부족하고 모자라는 점이 있어도 너그럽게 봐주시고 권문 화합의 축제를 위하여 능곡회가 열



심히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권중근 협의회 회장은 축사에서 "전국체육대회를 준비하고 있는 능곡회원들이 수고가 많은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권철환 종친회장은 축사에서 "전국 종친회를 살리고 청년을 모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춘 회가 안동 능곡회"라고 칭찬한 후 "안동 능곡회는 제1회 대회와 제13회 대회에 이어 20년 만에 제33회 전국체육대회가 세 번째 안동에서 개최하는데 다른 지역과 다르게 자부심과 긍지를 갖추어 행사를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오직 능우회장은 축사에서 "이번 전국체육대회를 안동에서 개최하는데 대회 임원진들이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며 아쉬움을 표시했다. 이어 체육대회 임원 9명을 소개한 후 무대 단상에

고사(告祀) 상(床)을 마련, 권태형 대회장, 권영훈 준비위원장, 권순선, 권오현 제례위원 등 4명이 흰 제복에 유건을 쓰고 성공적인 체육대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고사제(告祀祭)를 올렸다. 권영훈 준비위원장 겸 집례는 창홀(唱符)의 순서에 따라 권철환 회장을 비롯하여 각 파종회장, 도의원, 능곡회장 및 회원, 능우회원 및 회원, 읍면동 지회장, 부녀회원 등이 차례로 절을 하면서 돈을 넣은 봉투를 돼지머리 입에 꽂아 넣기도 했다.

1부 행사인 고사제가 끝나자 단체로 기념촬영을 한 후 권씨회관 1층에 자리 잡고 있는 '양반참상식당'으로 이동, 2부 행사로 다과회를 가지면서 정담을 나누다가 헤어졌다. 주최 측은 참석자 전원에게 티원 1장씩을 선물로 나눠 주었다. 권영건 보도부장

권기식 자문위원 한중경제협력센터 개소식 거행

권기식 한중도시우회협회 회장은 3월 5일 오후 3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4길 20 맨하탄21빌딩 1209호에서 심하이밍 주한중국대사를 비롯하여 남영진 전 KBS 이사장과 박인복 한국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회장, 권완근 코차코퍼레이션 대표, 유하이엔 한국중국상회 집행회장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연미 아나운서의 사회로 한중경제협력센터 개소식을 거행했다.

심하이밍 주한중국대사는 축사에서 "대사관을 대표하여 창립을 축하한다. 중국과 한국의 우호와 협력과 교류에 관심이 많은 권기식 회장에게 감사 드린다. 중한 양국은 상호 우호적인 이웃이자 전략적 동반자이다. 지난 32년간 교류와 협력하며 경제와 무역으로 세계 발전과 번영에 기여했다. 한일과 한미 보다 한중이 더 앞섰으며 20년간 무역 최대 자리를 유지했다. 양국간 실무 협력이 튼튼한 강인성을 보여주고 있다. 낙후된 나라에서 세계 2위 경제대국으로 우뚝섰다. 강력한 성장동력을 가지게 되었다. 중국시 현대화를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대외 개방을 확대할 것이다. 세계 발전에 동력을 불어 넣을 것이다. 대중국 투자를 지원할 것이다. 한중경제협력센터가 중한 호혜 발전에 기여해 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남영진 전 이사장은 "현재 한중도시우회협회 고문이다. 사회문화적 교류는 활발했으나 경제 교류는 활발하지 못했다. 한국이 3만불 오르는 데 중국의



도움이 컸다. 중국도 한국의 도움으로 G2로 올라갔다. 중국과 한국은 한 몸이나 마찬가지다. 중국과 관계 우리가 끌고 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권기식 회장은 "오늘 심하이밍 주한중국대사님을 비롯한 한중관계 기업인 여러분들이 개소식에 많이 참석해주셔서 감사하다. 1992년 수교 이후 한중 관계는 외교안보와 경제협력의 양축으로 크게 발전했다"며 "특히 경제협력을 통해 한중 양국은 번영과 성장의 동반자가 됐다. 한중도시우회협회가 오늘 한중경제협력센터를 개소한 것은 한중 양국의 경제협력과 기업인 교류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관계가 깊어지면 우정도 깊어진다.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귀한 걸음 해주신 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영완 편집국장